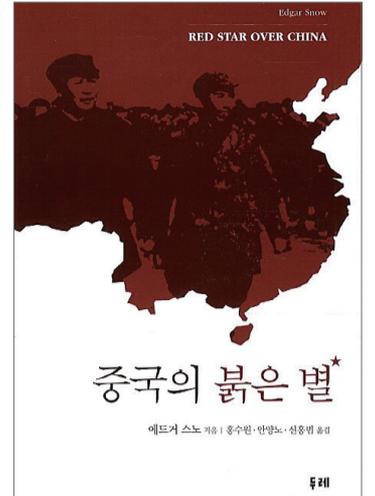


12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 ⑬ 에드거 스노 『중국의 붉은 별』



류샤오치, 마오쩌둥과 대화 중인 에드거 스노(우)

(사진=Wikimedia commons)



에드거 스노 『중국의 붉은 별』

완전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 활동 지역으로의 접근 자체가 매우 위험한 모험과도 같았다. 이 책은 총 12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붉은 중국을 찾아서'의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서 에드거 스노는 이 르포를 왜 기획하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 내용 중 "중국 공산당은 농민혁명을 위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또 소비에트식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경 정부 측은 공산주의자들을 '지능적인 비적들'이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파괴자와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매도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아니면 양쪽이 다 옳다는 말인가?"라는 부분은 당시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저자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에드거 스노는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등 중국의 지도자들과 절친한 관계가 되었고 이후 중국의 공산혁명을 해외에서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활동으로 인해 한국 전쟁 이후 매카시즘이 만연하던 1950년대 미국에서는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고 결국 미국을 떠나 스위스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72년 제네바에서 암으로 생을 마감한 에드거 스노의 유해는 그의 유언에 따라 유골의 반은 그의 조국 미국으로 그리고 나머지 반은 중국으로 왔다. 중국 정부는 그의 유골을 베이징대학 내의 미명호 호숫가에 묻어주고 묘비에는 '중국인민의 미국친구 에드거 스노'라고 새겼다. 일찍이 플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헤리슨 솔즈베리는 "에드거 스노를 읽거나 연구하지 않고는 누구도 오늘의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에드거 스노의 중국에 대한 저작을 높게 평가했다.

중국의 공산혁명을 기록한 고전

이준태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공산당의 위치와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중국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위치를 보면 그 서문에 "중국은 중국공산당 영도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3개 대표사상, 시진핑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국가주석과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하는데 공식행사에서 소개할 때는 '국가주석' 보다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직을 먼저 언급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 가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전국민대표대회(전인대)'가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붉은 바탕에 한 개의 큰 별과 네 개의 작은 별로 다섯 개의 별을 지칭한다. 여기서 작은 별은 중국을 구성하는 4개의 계급 즉 노동자-농민-민족자산계급-소자산계급을 그리고 큰 별은 바로 중국공산당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중국공산당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직되어 지금과 같은 막강하고 절대적인 조직이 될 수 있었을까?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해인데 이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를 알지 않고는 결코 현대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를 의인화하면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의 삶을 역적스럽게 극복한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하고 표현하여도 될 것 같다.

중국공산당의 탄생은 1921년 7월 당시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중국 전역의 공산당 대표 13명이 모여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료 상에는 창당 당시 등록된 중국공산당 당원의 수는 57명

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단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의 한명이었던 마오쩌둥은 28년 후인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다.

그럼 창당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이 28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중국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 숫자상으로도 보아도 일종의 동아리 모임 수준 규모의 정말 보잘 데 없는 이 단체가 28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으며 3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이 작은 단체는 1921년 창당 초기에는 국민당과의 국공합작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했으나 손문 사후 국공합작의 와해와 함께 장계석 국민당의 공격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공산당은 1934년 10월부터 370일간 장장 9,600킬로미터의 대장정(大長征)을 통해 중국의 서부 산시성 옌안(延安)에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마오쩌둥은 이 대장정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옌안 소비에트

(해방구)정부는 이후 중국공산당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중국의 붉은별』(원서명은 Red star over China)는 당시까지 외부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중국 내에서도 비적(匪賊) 또는 홍비(紅匪)로 불리던 중국공산당의 실체와 특히 옌안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외부세계에 소개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에드거 스노(Edgar Snow, 1905~1972)는 미국 국적의 저널리스트로 1928년부터 1941년까지 중국 및 아시아 대륙에 머물며 영미 유력 신문의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직접 취재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저서가 『중국의 붉은 별』이다. 에드거 스노는 1936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외부에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공산당 통치지역으로 들어가 4개월간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과 회견한 내용과 직접 체험한 해방구 지역 민들의 삶을 르포로 출간하였다. 당시 중국 서북부의 중국공산당 활동지역은 일본과의 전쟁에 앞서 공산당 세력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장계석 국민당 정부에 의해